

대세냐 이번이나... 오늘 결판 난다



26일 대전MBC에서 열린 2017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이 토론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호남 경선...주자들 막판 구애전 치열

文 캠프 ‘반문’ 김두관·李 캠프 이종걸 합류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를 가를 승부 처인 27일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각 후보 진영에서는 모든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호남권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처럼 압승을 거둔다면 대선 행 티켓을 눈앞에 두게 되지만,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 시장이 선전할 경우 민주당 경선은 안갯속으로 접어들게 된다.

특히 문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해도 2위 후보가 격차를 상당히 좁힐 경우 경선전이 더욱 치열해지며 결선투표까지 배제할 수 없는 순회경선마다 가슴 졸이는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안 지사와 이 시장간 2위 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 후보는 26일 대전 합동 토론회에서 9번째 일합을 거뒀다. 당초 전남 충북 토론회로 충청권 토론회를 감응하려 했지만, 대전·충남 지역에 방영되지 않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구를 거쳐 대전, 광주까지 광복 행보에 나섰다. 우선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대전에서 토론회 일정을 소화한 뒤 천안함 피격 7주기를 맞아 대선 국립현충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결전의 땅인 광주에 입성, 27일 호남권 경선 현장연설에서

서의 메시지를 접경했다. 그는 경선 현장연설에서 ‘대세론’을 강조하면서 두 후보가 되는 ‘원 팀’으로 대한민국을 바꾸자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5일 김두관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쟁 관계였으며, 대표적인 ‘반문(반문재인)’ 인사로 불려온 김 의원의 영입은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안희정 충남지사로 이날 오전 의원 멘토단장인 박영선 의원 등과 함께 대전 국립현충원에 들러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천안함 용사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대전에서의 대선주자 토론회를 마치고 곧바로 광주로 이동했다. 그는 이틀날인 호남 경선일까지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 연설 준비를 비롯해 경선 준비에 올인한다.

안 지사는 지역주의 구도 속에서 소외돼 온 호남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통합의 책임자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일절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호남 경선 준비에 몰두했다. 이 시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의 호남권 지지율이 안 지사를 넘어섬에 상승세에 있다고 보고, 이곳에서 문 전 대표와 격차를 최대한 좁혀 ‘의미있는 2등’을 기록한다면 경선 이번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는 현장연설에서 반직·특권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국민만 바라본 자신의 삶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당내 비문 진영의 이종걸 의원은 지난 25일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를 공개 선언하고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표심 움직여라” 현장 연설 메시지 심혈

文 “한팀으로 나라 개혁”·安 “호남 한 풀 것”·李 “호남정신 구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27일 열리는 호남지역 순회투표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연설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선이 일반국민과 당원, 대의원 간 표의 가치가 같아 대의원 현장 투표를 앞두고 진행되는 연설의 위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박빙으로 치러진 역대 경선이나 전당대회에서는 명연설로 표심을 움직여 결과를 바꾸는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후보들이 절대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역 순회경선의 현장 연설이 당원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메시지를 준비 중이다. 김경수 대변인은 이날 “현장 투표일은 지역투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날로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한 팀으로 대한민국 바꿔 나가자는 메시지가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호남의 정서에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안 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은 “지역개발 공약으로 호남의 민심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건 이미 잘 아는 사실”이라며서 “호남의 한을 가슴으

로 이해한 심정을 담아 연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2008년 통합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 절절한 외침으로 당원들의 기억에 남는 연설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누구보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호남 민심에 어떤 정권교체가 진짜 정권교체인지를 되묻고 이 시장의 강점을 강조하는 연설을 준비 중이다. 이 시장 측 김병록 대변인은 “사람 하나 바뀐다고, 세력만 바뀐다고 정권교체이라는 물음과 함께 진짜 ‘호남정신’을 구현할 책임자가 이 시장임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투표결과 유출 의도 없어”

당 선관위 6명 징계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26일 전국 투표소 현장 투표 결과 추정자료가 SNS를 통해 유출된 것과 관련, 지역별 투표 결과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지역위원장 6명에 대해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당 선관위 진상조사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투표 결과를 외부로 유출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대면조사 결과 당 지역위원장이 모여있는 채팅방에 각자 지역구의 개표결과만 게재했고, 다른 SNS에는 유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치열해진 한국당

당원 투표 돌입·TV 토론 날선 공방...31일 후보 결정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책임당원 현장투표가 26일 실시되면서 주자간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오는 31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책임당원 현장투표와 29~30일 실시되는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후보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김진태 의원,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기호순)는 첫 관문인 책임당원 현장투표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지지자들에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7시 전국 231개 지역에서 18만2000명의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투표를 시작했다.

네 명의 대선주자는 현장투표를 의식한 듯 오전 9시부터 KBS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론조사에서 당내 선두를 달리는 홍 지사가 주 공격대상이 됐고, 홍 지사도 “여기가 없다”, “초등학생 토론도 아니고” 등의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방어했다.

김 지사는 TV토론에서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뽑는 중요한 투표이니 오늘 꼭 현장투표를 해달라”고 독려했고, 이 전 최고위원도 “책임당원 모두 투표장에 가서 제게 성원을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KBS토론회를 끝낸 뒤 투표소를 찾아 한 표 행사와 지지 호소에 나섰다. 이 전 최고위원이 먼저 영등포선관위를 찾았으며, 나머지 세 주자는 오후에 영등포선관위와 마포선관위 등을 각자 방문했다.

각 캠프에서는 더 많은 지역 내 책임당원 표심을 확보하고자 이날까지도 현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과 적극적으로 접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승기 잡은 유승민

바른정당 경선 정책평가 4전 전승...내일 후보 확정

바른정당 대선후보 경선 정책평가단 투표에서 유승민 의원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4전 전승을 거두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바른정당은 26일 서울·수도권 국민정책평가단 투표에서 총 1980명 중 유 의원이 777명, 남 지사가 578명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치른 호남권·영남권·충청권 국민정책평가단 투표 결과와 합산하면 전체 2689명 중 유 의원은 1607명(59.8%), 남 지사는 1082명(40.2%)을 확보했다.

바른정당 경선에서 국민정책평가단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다. 나머지는 당원선거인단 30%, 일반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

바른정당은 25~26일 일반국민여론조사를, 26~27일 당원선거인단 투표를 한다.

바른정당은 이 결과를 취합하고 오는 28일 후보자 지명대회에서 대의원 3000명의 현장투표를 모두 합산해 대선후보를 확정한다.

/박지경기자jkpark@

‘비문 단일화’ 베이스 캠프 될까

김종인 여의도에 사무실 마련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중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조기 대선의 마지막 변수로 꼽히는 ‘비문(비문재인) 단일화’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전 대표는 여의도 대하빌딩 5층에 약 80평 규모의 공간을 마련, 이번 주 초·중반에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사무실에서는 현재 간막이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책상과 사무실용품 등을 들일 예정이다.

사무실이 들어서는 대하빌딩은 역대선거에서 유력주자들이 캠프 사무실을 둔 곳으로 유명하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때 사용했고, 불출마를 선언한 반기문 전 유엔(UN)사무총장도 이곳에 캠프를 꾸리려고 했었다. 지금은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의 캠프가 입주해 있다.

결별을 선언한 문재인 전 대표의 캠프가 있는 대산빌딩과는 사거리를 끼고 바로 마주 보는 위치다.

김 전 대표는 그동안 ‘비문연대’의 구심점을 자임하면서 정치권 인사들뿐 아니라 종교계·학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면서 ‘광복 행보’를 하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표가 직접 대권도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7일 대구를 방문, 천주교 대구대교구장인 조환길 대주교를 예방해 대구·경북의 민심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